

## 학부제시행에 대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와의 대응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1999학년도부터 대학 신입생의 선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학과단위 선발을 지양하고, 복수학과 체제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학과단위 신입생 모집도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복수학과군으로 구성되는 학부제로의 이행을 교육부로서는 권고하고 있는 듯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에서는 한차례 몸살을 앓았으며, 현재 어느정도 대응방안이 마무리 된곳이 많지만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곳도 있는 것 같다.

사실 학부제는 전공의 특성이나 대학이 놓인 환경등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와의 입장에 국한하여 그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1>에는 1998년 7월 31일 현재 부산대 공과대학에서 결정한 1999학년도 신입생 모집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공과대학 소속의 20개 학과를 5개의 공학부와 3개의 공학계열군으로 재편성하였고, 기존의 학과단위 신입생 선발은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조선·해양공학과는 토목공학과와 함께 토목·조선·해양공학계열로 편성되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자연대학의 전자계산학과가 공과대학의 정보·컴퓨터공학부에 편입되어 왔다는 것이다.

조선·해양공학과와의 결정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으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해양공학과로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지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학부제 시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유사학문을 다루는 학과의 경우 저학년의 학생들에 대해 명확한 학과구분 없이 기초공통과목을 공동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일반적인 기계시스템을 다루는 기계공학과 같은 학문에 대해서는 잘 들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해양공학과 같이 특수한 구조물을 다루는 학문의 경우에는 전공의 선택시기를 앞당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그 증거로서 현재 한국의 조선공업은 세계 2위의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중에서 명실공히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가장 근접해 있는 학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한 주역은 역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한 인력들이며, 그동안 수행해온 조선·해양공학의 교육체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물론 기존의 조선·해양공학의 교육체제도 개선해야될 사항은 없지 않지만 학부제와 같은 교육체제를 채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동되는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특수한 지식을 갖춘 조선·해양인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전공선택의 시기를 앞당기고, 특수분야로서의 교육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기본적인 개념에 부합하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학과가 결정한 것이 복수학과 계열군으로 편성하는 것이었다. 즉, 토목공학과와 함께 공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학생의 전공은 2학년 진학시에 기본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분류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의 학과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학생의 정원도 기존의 학과정원을 그대로 유지시킬 예정이다. 어차피 학부의 1학년생은 기초공통 및 교양과목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같은 체제의 변경은 큰 부작용이 없으리라 예상된다. 참고로 토목공학과를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상호 유사한 학문적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과간 협조체제 구축에도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끝으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조선·해양공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학회차원에서 전국의 조선·해양공학과 대표가 참석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대응책을 강구할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재 결정된 방안은 추후 재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학회지에서 지상으로나마 이같은 토론의 장을 통하여 보다 나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표 1〉 1999학년도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 모집단위

98학년도 입학정원		99학년도 입학정원			중감 인원 (A-B)	비고
학부(과)명	입학 정원 (B)	모집단위명	입학 정원 (A)	개설전공		
기계공학부	400	기계공학부	400	에너지시스템 기계시스템설계 정밀가공시스템 제어자동화시스템		
환경·고분자·화학공학부	170	응용화학공학부	215	환경공학 고분자공학 화학공학 섬유공학	-5	
섬유공학과	50					
재료공학부	95	재료공학부	90	금속공학 무기재료공학	-5	
전기공학과	70	전자전기통신공학부	190	단일전공	-10	전기공학과 (70), 전자공학전공 (120)
전자·컴퓨터공학부	200	정보·컴퓨터공학부	140	단일전공		전자계산학과 (70), 컴퓨터공학전공(80)
건축공학과	55	건축·도시공학계열	100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50					
항공우주공학과	50	응용기계 및 산업공학계열	100	항공우주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50					
토목공학과	50	토목, 조선·해양공학계열	135	조선·해양공학과 토목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80					
계	1,325		1,370		+45	전자계산학과 70명포함



### 백점기

- 1957년 1월 7일생
- 1987년 1월 조선공학 박사 (일본 오사카대학)
- 1989년 3월 이후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관심 분야 : 최종강도신뢰성, 충돌·좌초역학
- E-mail: jeompaik@hyowon.cc.pusan.ac.kr
- Web Site: ssm1.naoe.pusan.ac.kr